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(2009년 4/4분기)

2010. 2.

산업투자조사실 해외투자분석반

목 차

요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5
Ⅳ. 기업규모별 동향.....	8
Ⅴ. 기 타.....	10

< 요약 >

□ 2009. 4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91.6억 달러

- 4/4분기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13.1% 증가, 전분기 대비 136.3% 증가하여 '08년 1/4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

※'09년 총 투자누계는 194.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.1% 감소

-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해외투자는 '09년 2/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되었으며, 금 분기에는 '09년 연간 해외투자금액의 47.1%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회복
- 금 분기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64.4%를 차지하는 등 투자규모가 대형화
-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, 업종별로는 광업(원유 및 천연가스) 과 부동산 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

(단위: 억 달러, 개, %)

구 분	2007	2008	2009	2008. 4/4	2009. 4/4
투자금액	214.2 (84.2)	229.1 (7.0)	194.5 (-15.1)	38.8 (-55.3)	91.6 (113.1)
신규법인수	5,686 (8.8)	4,022 (-29.3)	2,483 (-38.3)	709 (-56.6)	673 (6.7)

* ()는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.

【 지역별 】

□ 북미, 유럽에 대한 투자금액 크게 증가

- 북미는 A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(22.8억 달러) 등으로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2.6% 증가
- 유럽은 B사의 영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(12.4억 달러)등으로 투자 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0.3% 증가

- 아시아는 제조업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, 도소매업 등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5.8% 증가, 투자비중 3위로 하락

※ 투자상위5개국(억달러): 캐나다(22.9), 영국(15.8), 미국(10.1), 홍콩(7.6), 중국(6.4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지역	2007	2008	2009	2008. 4/4	2009. 4/4	전년동기 대비 증가율
아시아	10,994	11,592	6,355	2,185	2,312	(5.8)
북미	3,605	5,290	5,975	1,091	3,300	(202.6)
유럽	4,422	3,062	4,944	761	3,044	(300.3)
중남미	1,462	1,680	922	123	105	(-14.4)
대양주	541	767	508	32	204	(532.2)
아프리카	239	320	388	59	39	(-32.6)
중동	160	204	360	50	158	(216.8)
합계	21,423	22,914	19,451	4,300	9,164	(113.1)

【 업종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광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큰 폭으로 증가

- 전년동기 대비 광업은 963.1%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631.3%로 크게 증가하며 투자비중 상위를 차지
- 제조업은 6.6% 증가에 그쳐 투자비중 3위로 하락 하였으며, 도매 및 소매업은 54.4% 감소

□ 제조업 투자 비중 전년동기 30.5%에서 15.3%로 감소 추세

- 세부 업종별로는 IT관련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 반면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투자는 감소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	2007	2008	2009	2008. 4/4	2009. 4/4	전년동기 대비 증가율
농업, 임업 및 어업	101	86	66	6	34	(514.6)
광업	2,051	3,579	5,089	327	3,476	(963.1)
제조업	8,098	6,859	4,460	1,312	1,399	(6.6)
건설업	822	849	458	104	133	(27.5)
도매 및 소매업	2,023	3,705	1,820	1,310	597	(-54.4)
숙박 및 음식점업	357	377	145	21	26	(27.1)
운수업	349	548	658	120	155	(29.3)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528	699	165	129	52	(-59.9)
부동산업 및 임대업	1,575	1,702	2,351	234	1,708	(631.3)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2,978	1,813	1,796	349	700	(100.6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207	207	122	9	42	(392.5)
기타	2,334	2,490	2,322	379	840	(121.4)
합계	21,423	22,914	19,451	4,300	9,164	(113.1)

【 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금액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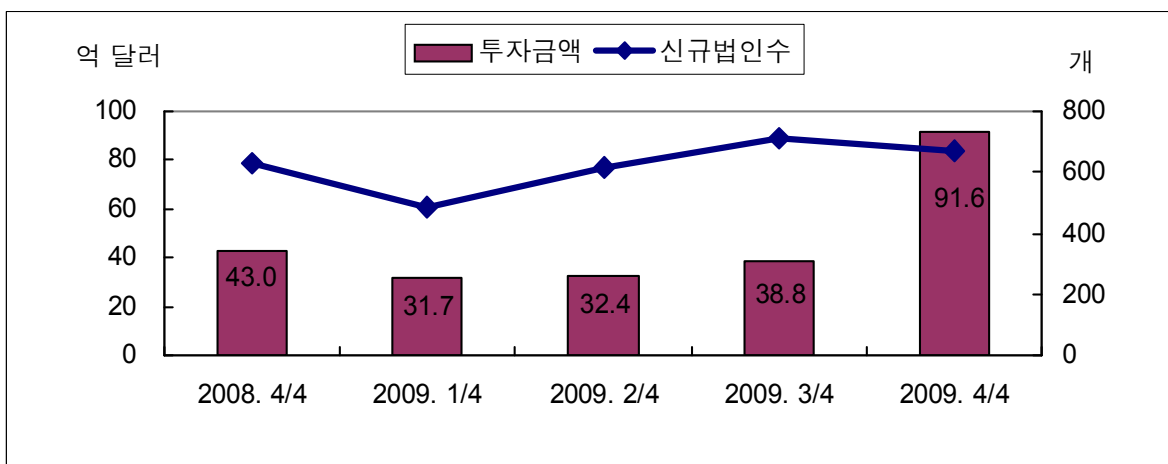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96.1% 증가하여 투자비중이 73.7%에서 89.4%로 증가
-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3.8% 증가에 그쳐, 투자비중이 20.9%에서 10.2%로 감소

I. 개 요

- '09. 4/4분기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금액은 실행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.1%, 전분기 대비 136.3% 증가한 91.6억 달러를 기록하여 '08. 1/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
-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투자는 '09년 2/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고, 금 분기에는 연간 해외투자금액의 47.1%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됨.
 - 금 분기 중 신고금액은 169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6.4% 증가하였으며, 신규 법인 수는 673개로 전년동기 대비 6.7% 증가
 - '09년 총 투자누계는 194.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.1% 감소

<그림 1>

해외직접투자 실적 추이 (총투자 기준)



<표 1>

총투자 건수 및 금액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7	2008					2009				
		1/4	2/4	3/4	4/4	계	1/4	2/4	3/4	4/4	계
투자금액	21,423 (84.2%)	6,718 (107.8%)	5,235 (14.9%)	6,661 (66.2%)	4,300 (-55.3%)	22,914 (7.0%)	3,170 (-52.8%)	3,240 (-38.1%)	3,877 (-41.8%)	9,164 (113.1%)	19,451 (-15.1%)
신규법인수	5,686 (8.8%)	1,294 (-4.6%)	1,162 (-20.8%)	935 (-33.5%)	631 (-56.6%)	4,022 (-29.3%)	487 (-62.4%)	614 (-47.2%)	709 (-24.2%)	673 (6.7%)	2,483 (-38.3%)

* ()는 전년 및 전기 대비 증감률임.

- 해외기업 M&A, 부동산 투자 등으로 1억 달러 초과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64.2%를 차지하는 등 투자규모가 대형화됨.
- 전년동기에 비해 지역별로는 북미, 유럽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였고, 업종별로는 광업(원유 및 천연가스),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가 크게 증가함.

2009. 4/4분기 중 주요 투자사업

- A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22.8억 달러
- B사의 영국 런던 부동산개발업 투자 : 12.4억 달러
- C사의 홍콩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6.3억 달러
- D사의 유럽, 미국 지주회사 투자 : 3.8억 달러
- E사의 미얀마 광업 투자 : 1.5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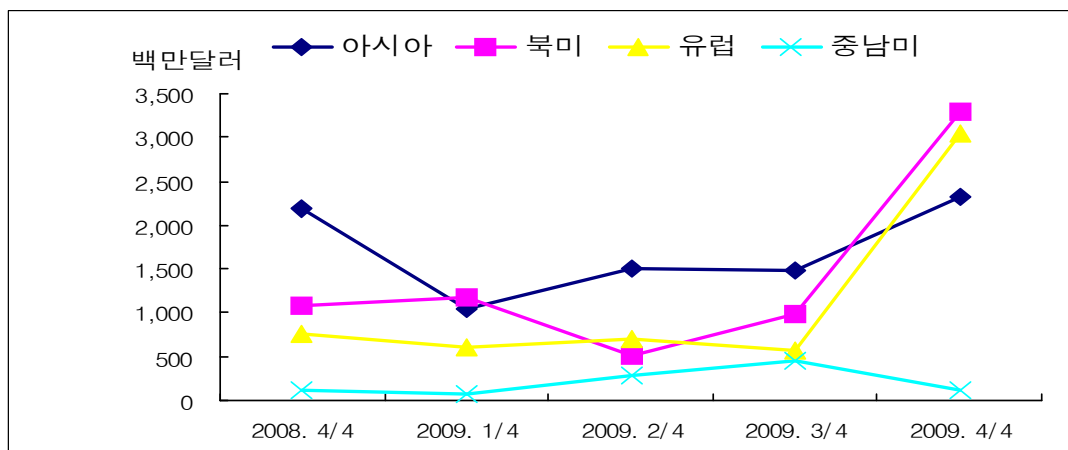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에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, 북미에서는 광업을 중심으로, 유럽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함.
- 투자 비중은 북미가 36.0%, 유럽이 33.2%로 증가하며 1, 2위를 차지한 반면, 전년동기에 50.8%로 최대 투자지역이었던 아시아는 25.2%로 3위로 하락함.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<표 2>

지역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0,994	3,786	11,592	2,744	6,355	1,588	2,185	441	2,312	436
(비중)	(51.3%)	(66.6%)	(50.6%)	(68.2%)	(32.7%)	(64.0%)	(50.8%)	(69.9%)	(25.2%)	(64.8%)
(증가율)	(73.9%)	(8.7%)	(5.4%)	(-27.5%)	(-45.2%)	(-42.1%)	(-40.6%)	(-56.2%)	(5.8%)	(-1.1%)
북미	3,605	1,314	5,290	808	5,975	534	1,091	108	3,300	138
(비중)	(16.8%)	(23.1%)	(23.1%)	(20.1%)	(30.7%)	(21.5%)	(25.4%)	(17.1%)	(36.0%)	(20.5%)
(증가율)	(64.2%)	(-2.2%)	(46.7%)	(-38.5%)	(13.0%)	(-33.9%)	(-45.0%)	(-64.2%)	(202.6%)	(27.8%)
유럽	4,422	254	3,062	196	4,944	133	761	36	3,044	37
(비중)	(20.6%)	(4.5%)	(13.4%)	(4.9%)	(25.4%)	(5.4%)	(17.7%)	(5.7%)	(33.2%)	(5.5%)
(증가율)	(259.9%)	(51.2%)	(-30.8%)	(-22.8%)	(61.5%)	(-32.1%)	(-75.0%)	(-41.9%)	(300.3%)	(2.8%)
중남미	1,462	101	1,680	91	922	85	123	14	105	26
(비중)	(6.8%)	(1.8%)	(7.3%)	(2.3%)	(4.7%)	(3.4%)	(2.9%)	(2.2%)	(1.1%)	(3.9%)
(증가율)	(11.3%)	(31.2%)	(14.9%)	(-9.9%)	(-45.1%)	(-6.6%)	(-76.0%)	(-46.2%)	(-14.4%)	(85.7%)
대양주	541	113	767	101	508	58	32	14	204	19
(비중)	(2.5%)	(2.0%)	(3.3%)	(2.5%)	(2.6%)	(2.3%)	(0.7%)	(2.2%)	(2.2%)	(2.8%)
(증가율)	(180.6%)	(16.5%)	(41.8%)	(-10.6%)	(-33.8%)	(-42.6%)	(-87.2%)	(-41.7%)	(532.2%)	(35.7%)
아프리카	239	32	320	30	388	33	59	7	39	7
(비중)	(1.1%)	(0.6%)	(1.4%)	(0.7%)	(2.0%)	(1.3%)	(1.4%)	(1.1%)	(0.4%)	(1.0%)
(증가율)	(15.5%)	(52.4%)	(34.1%)	(-6.3%)	(21.3%)	(10.0%)	(-55.2%)	(-12.5%)	(-32.6%)	(0.0%)
중동	160	86	204	52	360	52	50	11	158	10
(비중)	(0.7%)	(1.5%)	(0.9%)	(1.3%)	(1.9%)	(2.1%)	(1.2%)	(1.7%)	(1.7%)	(1.5%)
(증가율)	(-6.0%)	(138.9%)	(27.5%)	(-39.5%)	(76.8%)	(0.0%)	(55.9%)	(-56.0%)	(216.8%)	(-9.1%)
합계	21,423	5,686	22,914	4,022	19,451	2,483	4,300	631	9,164	673
(비중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
(증가율)	(84.2%)	(8.8%)	(7.0%)	(-29.3%)	(-15.1%)	(-38.3%)	(-55.3%)	(-56.6%)	(113.1%)	(6.7%)

* ()는 전년 및 전기 대비 증감률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분기 중 투자금액 23.1억 달러, 신규법인 수 436개로 전년동기 대비 투자금액은 5.8% 증가, 신규법인 수는 1.1% 감소함.
 - C사의 홍콩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632.4백만 달러
 - E사의 미얀마 광업 투자 : 151.9백만 달러
 - F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67.5백만 달러
- 전년동기 대비 금융 및 보험업, 광업, 제조업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투자는 감소하였음.

나. 북미

- 금 분기 투자금액은 33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202.6% 증가하였으며, 신설법인 수는 138개로 전년동기 대비 27.8% 증가하였음.
- A사의 캐나다 광업투자 : 2,280.0백만 달러
- D사의 미국 지주회사 투자 : 184.2백만 달러
- G사의 도소매업 투자 : 100.0백만 달러
- 북미는 전년동기 대비 광업, 제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음.

다. 유럽

- 총 30.4억 달러, 신설법인 수 37개로 전년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300.3% 증가하였으며, 신설법인 수는 27.8% 증가하였음.
- B사의 영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1,177.8백만 달러
- A사의 네델란드 광업 투자 : 361.0백만 달러
- D사의 아일랜드 지주회사 투자 : 198.7백만 달러
- 유럽은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광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투자가 증가하였으며, 제조업, 운수업의 투자는 감소하였음.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총 1.6억 달러, 신설법인 수 26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투자금액이 14.4% 감소하였으며, 신설법인 수는 85.7% 증가하였음.
- 중남미는 전년동기 대비 도매 및 소매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, 광업과 제조업에서의 투자는 감소하였음.

마. 기타

- 전년동기 대비 대양주는 532.2%, 중동은 216.8% 증가하였으나, 아프리카는 32.6% 투자액이 감소하였음.

※ 투자상위 5개국

- 주요 투자국은 캐나다 22.9억 달러, 영국 15.8억 달러, 미국 10.1억 달러, 홍콩 7.6억 달러, 중국 6.4억 달러 순으로 캐나다, 영국 앞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, 미국에 대한 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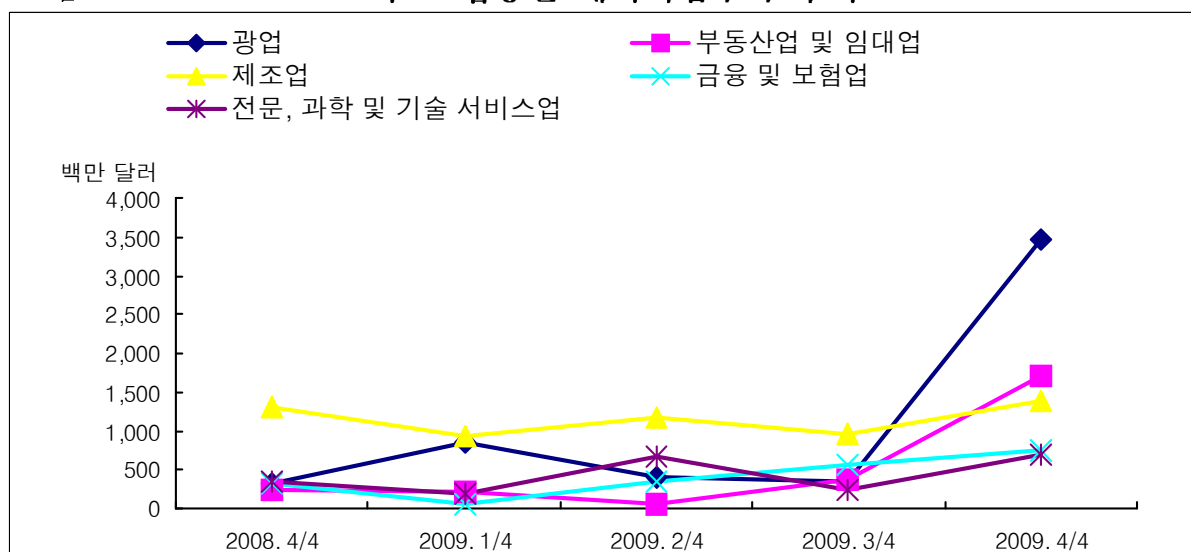
III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금 분기 업종별 투자 동향은 광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금융 및 보험업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가운데, 제조업은 소폭 증가,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세를 나타냄.
- 광업은 전년동기 대비 963.1% 증가한 34.8억 달러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년동기 대비 631.3% 증가한 17.1억 달러를 기록하며, 투자 비중이 각각 37.9%, 18.6%로 상승함.
- 반면, 제조업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IT 관련 제조업이 증가한 반면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투자는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.6% 증가에 그침.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<표 3>

업종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농업, 임업 및 어업 (비중) (증가율)	101 (0.5%) (131.7%)	78 (1.4%) (36.8%)	86 (0.4%) (-14.3%)	67 (1.7%) (-14.1%)	66 (0.3%) (-23.4%)	26 (1.0%) (-61.2%)	6 (0.1%) (-81.9%)	8 (1.3%) (-63.6%)	34 (0.4%) (514.6%)	10 (1.5%) (25.0%)
광업 (비중) (증가율)	2,051 (9.6%) (43.5%)	71 (1.2%) (7.6%)	3,579 (15.6%) (74.5%)	103 (2.6%) (45.1%)	5,089 (26.2%) (42.2%)	66 (2.7%) (-35.9%)	327 (7.6%) (-55.2%)	13 (2.1%) (-40.9%)	3,476 (37.9%) (963.1%)	20 (3.0%) (53.8%)
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8,098 (37.8%) (48.0%)	2,253 (39.6%) (-0.7%)	6,859 (29.9%) (-15.3%)	1,400 (34.8%) (-37.9%)	4,460 (22.9%) (-35.0%)	857 (34.5%) (-38.8%)	1,312 (30.5%) (-55.2%)	266 (42.2%) (-54.0%)	1,399 (15.3%) (6.6%)	246 (36.6%) (-7.5%)
건설업 (비중) (증가율)	822 (3.8%) (68.6%)	267 (0.4%) (4.7%)	849 (3.7%) (3.3%)	197 (4.9%) (-26.2%)	458 (2.4%) (-46.1%)	159 (6.4%) (-19.3%)	104 (2.4%) (-43.3%)	25 (4.0%) (-57.6%)	133 (1.5%) (27.5%)	55 (8.2%) (120.0%)
도매 및 소매업 (비중) (증가율)	2,023 (9.4%) (67.4%)	1,007 (17.7%) (6.6%)	3,705 (16.2%) (83.1%)	789 (19.6%) (-21.6%)	1,820 (9.4%) (-50.9%)	525 (21.1%) (-33.5%)	1,310 (30.5%) (9.5%)	120 (19.0%) (-51.0%)	597 (6.5%) (-54.4%)	130 (19.3%) (8.3%)
숙박 및 음식점업 (비중) (증가율)	357 (1.7%) (58.3%)	485 (8.5%) (0.0%)	377 (1.6%) (5.7%)	271 (6.7%) (-44.1%)	145 (0.7%) (-61.6%)	154 (6.2%) (-43.2%)	21 (0.5%) (-71.9%)	39 (6.2%) (-60.6%)	26 (0.3%) (27.1%)	35 (5.2%) (-10.3%)
운수업 (비중) (증가율)	349 (1.6%) (88.0%)	110 (1.9%) (31.0%)	548 (2.4%) (56.9%)	101 (2.5%) (-8.2%)	658 (3.4%) (20.1%)	80 (3.2%) (-20.8%)	120 (2.8%) (43.8%)	17 (2.7%) (-43.3%)	155 (1.7%) (29.3%)	14 (2.1%) (-17.6%)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(비중) (증가율)	528 (2.5%) (55.9%)	216 (3.8%) (6.4%)	699 (3.0%) (32.4%)	175 (4.4%) (-19.0%)	165 (0.8%) (-76.4%)	127 (5.1%) (-27.4%)	129 (3.0%) (-43.1%)	27 (4.3%) (-59.1%)	52 (0.6%) (-59.9%)	32 (4.8%) (18.5%)
부동산업 및 임대업 (비중) (증가율)	1,575 (7.4%) (81.6%)	348 (6.1%) (107.1%)	1,702 (7.4%) (8.0%)	282 (7.0%) (-19.0%)	2,351 (12.1%) (38.1%)	94 (3.8%) (-66.7%)	234 (5.4%) (-60.4%)	25 (4.0%) (-75.2%)	1,708 (18.6%) (631.3%)	32 (4.8%) (28.0%)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비중) (증가율)	2,978 (13.9%) (669.3%)	230 (4.0%) (23.7%)	1,813 (7.9%) (-39.1%)	218 (5.4%) (-5.2%)	1,796 (9.2%) (-0.9%)	125 (5.0%) (-42.7%)	349 (8.1%) (-86.2%)	40 (6.3%) (-38.5%)	700 (7.6%) (100.6%)	43 (6.4%) (7.5%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(비중) (증가율)	207 (1.0%) (61.1%)	101 (1.8%) (7.4%)	207 (0.9%) (-0.0%)	54 (1.3%) (-46.5%)	122 (0.6%) (-41.4%)	36 (1.4%) (-33.3%)	9 (0.2%) (-83.3%)	6 (1.0%) (-75.0%)	42 (0.5%) (392.5%)	7 (1.0%) (16.7%)
기타 (비중) (증가율)	2,334 (10.9%) (159.4%)	520 (9.1%) (10.4%)	2,490 (10.9%) (6.7%)	365 (9.1%) (-29.8%)	2,322 (11.9%) (-6.7%)	234 (9.4%) (-35.9%)	379 (8.8%) (-63.1%)	45 (7.1%) (-72.7%)	840 (9.2%) (121.4%)	49 (7.3%) (8.9%)
합계 (비중) (증가율)	21,423 (100.0%) (84.2%)	5,686 (100.0%) (8.8%)	22,914 (100.0%) (7.0%)	4,022 (100.0%) (-29.3%)	19,451 (100.0%) (-15.1%)	2,483 (100.0%) (-38.3%)	4,300 (100.0%) (-55.3%)	631 (100.0%) (-56.6%)	9,164 (100.0%) (113.1%)	673 (100.0%) (6.7%)

* ()는 전년 및 전기 대비 증감률임.

2. 제조업

- 금 분기 제조업 투자금액은 14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.6% 증가하였으며, 신설법인 수는 246개로 7.5% 감소하였음.
- 전년동기 최대 투자업종이었던 제조업의 금분기 투자 비중은 15.3%로 감소하여, 제조업, 광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.
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의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투자금액은 감소하였음.
- 지역별로는 북미 앞 투자는 증가, 유럽 앞 투자는 감소하였으며, 투자 비중은 아시아, 북미, 유럽 순임.

<표 4> 제조업 세부업종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식료품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233 (2.9%) (-13.8%)	133 (5.9%) (12.7%)	568 (8.3%) (143.2%)	71 (5.1%) (-46.6%)	153 (3.4%) (-73.0%)	36 (4.2%) (-49.3%)	27 (2.1%) (-35.9%)	13 (4.9%) (-65.8%)	65 (4.7%) (138.0%)	6 (2.4%) (-53.8%)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 (비중) (증가율)	586 (7.2%) (18.2%)	116 (5.1%) (-4.1%)	437 (6.4%) (-25.4%)	88 (6.3%) (-24.1%)	284 (6.4%) (-35.1%)	50 (5.8%) (-43.2%)	68 (5.2%) (-65.2%)	14 (5.3%) (-53.3%)	82 (5.8%) (20.5%)	11 (4.5%) (-21.4%)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235 (2.9%) (54.0%)	64 (2.8%) (30.6%)	146 (2.1%) (-37.8%)	56 (4.0%) (-12.5%)	204 (4.6%) (39.5%)	20 (2.3%) (-64.3%)	18 (1.4%) (-90.3%)	9 (3.4%) (-55.0%)	87 (6.2%) (374.4%)	5 (2.0%) (-44.4%)
1차 금속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517 (6.4%) (121.5%)	70 (3.1%) (12.9%)	604 (8.8%) (16.7%)	54 (3.9%) (-22.9%)	396 (8.9%) (-34.4%)	33 (3.9%) (-38.9%)	65 (4.9%) (-2.9%)	6 (2.3%) (-68.4%)	192 (13.7%) (196.9%)	5 (2.0%) (-16.7%)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1,942 (24.0%) (40.2%)	381 (16.9%) (7.6%)	834 (12.2%) (-57.1%)	238 (17.0%) (-37.5%)	725 (16.2%) (-13.1%)	171 (20.0%) (-28.2%)	109 (8.3%) (-65.1%)	54 (20.3%) (-48.1%)	235 (16.8%) (115.4%)	42 (17.1%) (-22.2%)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345 (4.3%) (118.0%)	225 (10.0%) (10.8%)	415 (6.1%) (20.3%)	150 (10.7%) (-33.3%)	325 (7.3%) (-21.6%)	98 (11.4%) (-34.7%)	121 (9.3%) (-20.2%)	30 (11.3%) (-55.2%)	104 (7.4%) (-14.8%)	36 (14.6%) (20.0%)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1,626 (20.1%) (83.6%)	161 (7.1%) (23.8%)	1,267 (18.5%) (-22.0%)	111 (7.9%) (-31.1%)	814 (18.2%) (-35.8%)	59 (6.9%) (-46.8%)	275 (20.9%) (-62.5%)	18 (6.8%) (-53.8%)	106 (7.6%) (-61.4%)	21 (8.5%) (16.7%)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(비중) (증가율)	363 (4.5%) (10.4%)	41 (1.8%) (105.0%)	883 (12.9%) (143.1%)	45 (3.2%) (9.8%)	247 (5.5%) (-72.1%)	20 (2.3%) (-55.6%)	349 (26.6%) (87.8%)	8 (3.0%) (14.3%)	53 (3.8%) (-84.7%)	4 (1.6%) (-50.0%)
기타 (비중) (증가율)	2,251 (27.8%) (44.1%)	1,062 (47.1%) (-12.4%)	1,706 (24.9%) (-24.2%)	587 (41.9%) (-44.7%)	1,313 (29.4%) (-23.0%)	370 (43.2%) (-37.0%)	279 (21.3%) (-73.4%)	114 (42.9%) (-55.1%)	475 (34.0%) (70.0%)	116 (47.2%) (1.8%)
합계 (비중) (증가율)	8,098 (100.0%) (48.0%)	2,253 (100.0%) (-0.7%)	6,859 (100.0%) (-15.3%)	1,400 (100.0%) (-37.9%)	3,147 (100.0%) (-35.0%)	487 (100.0%) (-38.8%)	1,312 (100.0%) (-55.2%)	266 (100.0%) (-54.0%)	1,399 (100.0%) (6.6%)	246 (100.0%) (-7.5%)

3. 광업

- 금 분기 중 투자금액은 34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36.1% 증가하였고, 신설 법인 수는 20개로 전년동기 대비 53.8% 증가하였음.
- 투자 비중 37.9%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세부 업종 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이 90.1%, 금속 광업이 9.3%를 차지함.

4. 부동산업 및 임대업

- 금 분기 중 투자금액은 17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31.3% 증가하였으며, 신설 법인 수는 32개로 전년동기 대비 28.0% 증가하였음.
- B사의 영국 부동산 투자에 따라 유럽 앞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, 투자 비중이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.

5. 도매 및 소매업

- 도소매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4.4% 감소한 6.0억 달러, 신설법인 수는 8.3% 증가한 130개를 기록함.
- 지역별로는 중동 투자가 증가하였으나, 북미,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.

IV. 기업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 분기 투자주체별 동향은 대기업의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44.6%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3.8% 증가하는데 그침.
- 대기업의 전체 투자에 대한 비중은 88.8%로 전년동기보다 11.5%포인트 증가하였으며, 중소기업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10.7%포인트 하락하여 10.2%의 비중을 차지함.

<표 5>

분기별·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4,110	384	15,912	365	15,772	256	3,326	56	8,133	71
(비중)	(65.9%)	(6.8%)	(69.4%)	(9.1%)	(81.1%)	(10.3%)	(77.3%)	(8.9%)	(88.8%)	(10.5%)
(증가율)	(93.7%)	(25.1%)	(12.8%)	(-4.9%)	(-0.9%)	(-29.9%)	(-54.1%)	(-53.3%)	(144.6%)	(26.8%)
중소기업	5,989	2,270	6,003	1,859	3,339	1,196	899	318	933	324
(비중)	(28.0%)	(39.9%)	(26.2%)	(46.2%)	(17.2%)	(48.2%)	(20.9%)	(50.4%)	(10.2%)	(48.1%)
(증가율)	(79.5%)	(17.7%)	(0.2%)	(-18.1%)	(-44.4%)	(-35.7%)	(-56.4%)	(-48.6%)	(3.8%)	(1.9%)
개인 및 기타	1,325	3,032	998	1,798	340	1,031	76	257	97	278
(비중)	(6.2%)	(53.3%)	(4.4%)	(44.7%)	(1.7%)	(41.5%)	(1.8%)	(40.7%)	(1.1%)	(41.3%)
(증가율)	(31.1%)	(1.4%)	(-24.7%)	(-40.7%)	(-66.0%)	(-42.7%)	(-76.3%)	(-64.1%)	(28.0%)	(8.2%)
합계	21,423	5,686	22,914	4,022	19,451	2,483	4,300	631	9,164	673
(비중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	(100.0%)
(증가율)	(84.2%)	(8.8%)	(7.0%)	(-29.3%)	(-15.1%)	(-38.3%)	(-55.3%)	(-56.6%)	(113.1%)	(6.7%)

2. 대기업

- 분기 중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81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4.6% 증가하였고, 대기업 현지법인 신설법인 수는 71개로 전년동기 대비 26.8% 증가하였음.
- 대기업은 제조업, 광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, 도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투자가 감소하였음.
- 지역별로는 유럽, 북미, 중동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고,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며, 투자 비중은 북미, 유럽, 아시아 순임.

3. 중소기업

- 분기 중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9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.8% 증가하였으며, 중소기업 현지법인 신설법인 수는 324개로 전년동기 대비 1.9% 증가하였음.
- 중소기업은 제조업, 도소매업 업종에서 전년동기 대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, 광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음.
- 지역별로는 대양주, 북미, 중동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고, 유럽, 아시아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며, 투자 비중은 아시아, 북미, 유럽 순임.

V. 기 타

□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73.7%에서 금분기 89.4%로 상승하였고, 지분율 50%~100% 미만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11.6%에서 금 분기 5.0%로 하락하였음.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
10%미만	713	(3.3%)	602	(2.6%)	284	(1.5%)	128	(3.0%)	89	(1.0%)
10이상 50%미만	2,388	(11.1%)	2,743	(12.0%)	1,581	(8.1%)	479	(11.1%)	355	(3.9%)
50%	546	(2.5%)	344	(1.5%)	661	(3.4%)	23	(0.5%)	67	(0.7%)
50%초과 100%미만	2,554	(11.9%)	2,068	(9.0%)	1,241	(6.4%)	499	(11.6%)	457	(5.0%)
100%	15,223	(71.1%)	17,157	(74.9%)	15,685	(80.6%)	3,170	(73.7%)	8,197	(89.4%)

□ 투자규모별

- 건당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71.2%에서 금분기 85.2%로 상승하였으며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의 비중도 29.6%에서 64.4%로 크게 상승하는 등 투자 규모가 대형화됨.

<표 7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
1천만달러 이하	6,142	(28.7%)	5,603	(24.5%)	3,858	(19.9%)	1,236	(28.8%)	1,357	(14.8%)
1천만달러 ~1억달러이하	6,773	(31.6%)	8,253	(36.0%)	6,598	(33.9%)	1,791	(41.6%)	1,906	(20.8%)
1억달러초과	8,508	(39.7%)	9,058	(39.5%)	8,995	(46.2%)	1,274	(29.6%)	5,901	(64.4%)

□ 투자방법별 (증권 · 대부 구분)

- 증권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85.2%에서 금분기 86.1%로 소폭 증가하였으며, 대부투자는 13.9%로 투자비중이 소폭 감소함.

<표 8>

투자방법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 4/4		2009. 4/4	
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
증권투자	18,324	(85.5%)	18,879	(82.4%)	16,223	(83.4%)	3,662	(85.2%)	7,893	(86.1%)
대부투자	3,099	(14.5%)	4,035	(17.6%)	3,229	(16.6%)	638	(14.8%)	1,271	(13.9%)

□ M&A형 해외투자

- M&A형 해외투자는 20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.8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02건으로 24.4% 증가함.
- 업종별로는 광업, 금융 및 보험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, 도매 및 소매업, 제조업은 감소함.

<표 9>

M&A형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	2007		2008		2009		2008.4/4		2009.4/4	
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	투자금액	금액비중
광업	3.6	(6.3%)	8.0	(11.8%)	13.0	(25.3%)	0.4	(2.2%)	3.9	(19.2%)
도매및소매업	11.3	(20.0%)	20.6	(30.4%)	9.6	(18.7%)	8.4	(49.3%)	3.4	(16.6%)
금융및보험업	2.4	(4.2%)	2.3	(3.4%)	9.1	(17.8%)	0.7	(4.2%)	6.6	(32.4%)
전문,과학및기술서비스업	16.3	(28.9%)	5.5	(8.2%)	6.5	(12.8%)	0.9	(5.2%)	3.0	(15.0%)
제조업	14.8	(26.3%)	15.7	(23.2%)	7.2	(14.2%)	3.6	(21.1%)	2.2	(11.0%)
기타	8.1	(14.3%)	15.6	(23.0%)	5.7	(11.2%)	3.1	(17.9%)	1.2	(5.8%)
합계	56.4	(100.0%)	67.8	(100.0%)	51.1	(100.0%)	17.1	(100.0%)	20.3	(100.0%)